

협동과정으로서의 교과-비교과 연계 사례연구

- K대학 교양영어 KUGEP를 중심으로 -

윤소영*

- I. 들어가며
- II. KUGEP의 내용과 운영 현황
- III. 교과-비교과 연계의 중요성
- IV.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의 의미
- V. 나가며

■ 국문요약

이 연구는 충청권에 위치한 K대학의 교양영어인 KUGEP의 운영에 있어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조망하는 데 목적을 둔다. 비교과프로그램은 교과를 통해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충할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본고에서는 학생들이 교과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과정적인 부분에서 운영 실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논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대학 글로벌 캠퍼스의 교양대학 영어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 2020년도 성과를 통해 설명하려 한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생성과정과 운영실태 및 결과치를 통해 어떠한 성과에 도달하였

*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부교수, sweetie33@daum.net

는지와 향후 추가적인 유의미한 프로그램 신설 등을 예측하는 것도 논의에 포함한다.

주제어 ● 교과, 비교과, 튜터링, 영어 점프, KU Talk

I. 들어가며

많은 국내 대학들이 교양교육원 등의 규모였던 교양담당 부서를 단과대학으로 승격해왔고, 더불어 교양 대학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는 경향을 보인다. 교양대학이 단과대학으로 존재하고 운영되면서 교양 교육에 대한 가치를 전면 부각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건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상허 교양대학, 동국대 다르마 칼리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서울여대의 바롬교양대학, 배재대 주시경 대학 등 그 수는 손꼽을 수도 없을 만큼 다양하다. 대부분의 교양 관련 대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이점은 학교 설립취지를 반영하여 교양교육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는 점이다. 또한 각 학교마다 중시하는 학생들의 ‘역량’에 중점을 두면서 교양과목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송나리 1). 하지만 “K-CESA는 직업세계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대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만을 강조하거나 직업관련 역량에 지나치게 초점을”(이희원 외, 26) 두고 있다는 지적도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교양 교과 중에서도 영어교과에 대한 중요성은 교과목의 종류 및 분반수로 알 수 있다. 교양 교과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언어 영역 중에서 특히 영어 교과는 교양의 꽃이라 불리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많은 분반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K대학 글로벌 캠퍼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교양 영어 관련 교과만 학기 당 70개 이상의 분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여타의 지방 사립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영어교과의 구성요건은 영어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래에 들어 빈번하게 회자되고 있는 용어인 ‘세계시민 교육, 세계화, 지구촌’ 등의 주제어는 교양 교과의 중점 요소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교과목은 이와 더불어 많은 관심과 시선을 끌면서 신생 교과목으로 선보이고 있다. 어떠한 교양과목이든 영어를 배제하거나 영어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영어 교과에 대한 인식은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영어교육은 세계화와 함께 더 강화될 것으로 본다. 스며든다는 말이 적절할 정도로 영어교과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은 지속성을 띠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는 한 예가 K대학 글로컬 캠퍼스의 교양영어 교과과라 할 수 있다. 특성 및 운영현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본 연구는 대학 내 영어 교과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다양한 정책적 요인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발생하는 수업시수의 변동 등 교과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대안책을 살펴볼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과-비교과의 연계를 추진하면서 이룬 성과 등을 충청권에 소재하고 있는 K대학교 적용사례로 논의를 풀어갈 것이다. K대학에서 실행한 교과-비교과 연계의 의미와 중요성을 수업 효과와 결부해 분석하고자 한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향상된 역량은 정량적 결과치로 제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선행연구

전공 및 교양 교과와 비교과 교육과정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특성과 목표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대별한 두 교육과정 간의 특이점은, 체계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과와 달리 비교과는 수요자 요구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비교과는 교과와 달리 더 자율적인 면모를 띠고 운영 방식 또한 유연성을 띠는 장점을 보인다. 최근 이희원과 박소현(2021)은 정규 교과와 비교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재

학생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바를 연구하였다. 정규 교과목과 비교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재학생 역량 함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교과-비교과의 연결지점에 놓인 이슈와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장학금 제도는 핵심역량 함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이를 위한 균형 있는 비교과 학습에 대한 동기를 자극한다는 점에서도 유용한 전략”(이선경 외, 210)이라는 지적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동기부여를 위해 장학금 형식의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 많은 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를 펼친 강혜진은 “비교과교육이 새롭게 강조됨에 따라 각 대학들이 설계사례들을 공유하거나 각 대학이 실시한 비교과교육의 교육성과를 ‘역량’, ‘만족도’라는 도구로 측정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동향”(강혜진 245)이라 밝히고 있다. 더불어 영어와 관련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사례가 많지 않음을 강조하기도 한다.

많은 연구(김현우, 강선영, 2018; 한안나, 2017; 송나리, 2020; 강혜진, 2021)에 나타난 것처럼 비교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은 교과에서의 학업 성취 향상에 기여하고, 이러한 향상을 통해 “사회적·정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직무능력을 개발하고 대학 생활의 만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의 성과에도 영향”(이희원 외)을 끼치고 있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장점에 대해 주목한 연구(김현우, 강선영, 2018; 백원영 2016.; 강혜진, 2021)에 나타난 것처럼 사고력 증진과 대인관계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익히 알려져 있다.

더불어 비교과의 입지는 이제 정규 교과목을 지원하고 보충하는 “Extra-Curriculum에서 점차 정규 교육과정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이란 의미의 Co-Curriculum으로 진화”(Clegg et al., 2009 재인용)하고 있음을 이희원은 지적한다(재인용 27). 정규교과에 혁신이라는 옷을 입히면서 새로운 교육방법론에 대한 모색과 함께 장식품처럼 존재했던 비교과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처럼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김현우와 강선영(2018)의 지적처럼 “비정규 교육과정이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심층적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은 비교과의 영역이 교과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가

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라 본다. 더불어 “스스로의 학습을 관리·주도하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메타인지 능력을 함양”(이선경 외, 210) 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II. KUGEP의 내용과 운영 현황

K대학 글로벌 캠퍼스의 교양영어 교과는 2014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전의 일반 ‘교양영어’에서 ‘KUGEP’(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English Program)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교양 영어의 특성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KUGEP는 세계화(Global)와 지역기반(Local)을 융합한 용어인 글로벌(Glocal)을 필두로 하여, 캠퍼스 명칭에 걸맞게 세계화를 지향하고 지역기반 사업 연계 캠퍼스의 특성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교양과목이다. 특히 외국어역량 강화를 고려해 입학 초기부터 적용하고 있는 교양영어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졸업을 앞둔 고학년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토익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을 앞둔 고학년 학생들은 졸업에 즈음해 전공 관련 역량 신장에 집중하는 편이어서 전공과 영어를 모두 집중 향상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학과에서 졸업인증 점수로 제시하고 있는 공인영어시험 성적은 취업과 결부된다는 점에서 영어관련 교과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입학 후 2학년까지 영어 능력기반을 다지고 실질적인 공인성적을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학교의 의사결정자들과 학생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다. 특히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영어성적 관리에 소홀할 경우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보원을 요구하는 학교 당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현재의 KUGEP 교과를 총 4학기에 걸쳐 KUGEP 1, 2, 3, 4과목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기존의 실용영어 1, 2 교과에서 확장되어 4개 학기 동안 영어 교과에 몰입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재학생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교과

적용 당시인 2014년부터 획기적이고 다양한 비교과를 교과운영과 연계성을 두며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여러 차례의 외부 컨설팅을 의뢰했고, 컨설팅 결과는 학문적 영어와 비즈니스 특화된 토의 집중 수업을 병행하는 것보다 한 가지 영역에 집중하는 쪽이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교수진의 입장은 양쪽을 함께 이끌어 가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고, 영어의 기초를 쌓으면서 동시에 취업 준비를 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담아 진행하기로 했다.

KUGEP 1은 신입생들에게 영어의 기본을 다지게 하면서 1주 당 총 3시간 중 1시간을 토의에 할애해 실전 토의시험을 준비시키는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활동 중심의 교양영어 수업에서 빠빠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내용 중심의 수업을 통해 시험을 대비한다는 두 가지 목표가 병행되다 보니 교수자와 학생들 모두에게 긴장감이 고조되는 수업이 되고 말았다. 연도별 수업 내용의 변화는 아래 표에 나타나 있다.

〈표 1〉 연도별 수업 내용 변화

	KUGEP 1	KUGEP 2	KUGEP 3	KUGEP 4
2014 ~ 2015	영문법2h	영문법2h	듣기+읽기	말하기+쓰기
	금요일 토의 몰입 5주×3h		금요일 토의 몰입 8주×2h	
2016~ 2018	영어듣기 +토의	영어말하기+토의	영어읽기 +토의	영어쓰기 +토의
2018~ 2020	영어듣기 +토의	영어읽기 +토의	영어말하기+토의	영어쓰기 +토의

특히 첫 시행 당시, 몰입수업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하에 금요일에 집중 몰입수업을 진행하였으나 학생들은 4주간 4시간의 토의 수업을 수강한다는 것에 불만이 큰 편이었다. 이 부분은 2014년 8월자 <건대신문>에서 행한 설문 조사에 그 결과를 담고 있다. 학생들은 금요일 몰입수업에 대해 85% 가량의 불만을 표할 정도로 힘겨운 수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후 이러한

불만사항을 보완하여 8주간의 몰입수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금요일 수업에 대한 불만은 해소되지 못했고, 더군다나 학점이수에 요구되는 요건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KUGEP1의 경우, 16주간의 출석, 중간/기말고사 모두 응시하고, 과제 제출을 했다 해도 교과에서 요구하는 기준점인 모의토익 성적 350점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성적이 F로 처리되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불만이 여러 방면에서 제기되었고, 영어교과 수강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에 이른다. 기준점 미달의 경우 F학점을 받게 되니, 학점이수를 못하게 되는 피로감과 낭패감이 가중되면서 교과 수강이 과도한 부담감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과에 대한 운영방식 변동과 비교과프로그램 진행의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었다. 교과상 변화는 목표점수 통과 기준을 점수대별 성적부과로 변경한 것이다. 모의토익 점수를 전체 100% 중 20%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550점 이상자는 교과 성적의 20%인 20점(만점)을 부과하고, 토익 점수 구간 50점 단위로 끊어서 2점씩 하향하고, 350점 미만자는 응시 기본 점수인 10점을 부과하였다. 미응시자의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해당 학기 중 공인토익 성적이 있을 시 제출하면, 그 점수를 모의토익성적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함께 진행하였다.

모의토익 성적 점수가 다소 낮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고교시절까지 토익에 많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인 학생들에게 비즈니스 영어 중심의 토익시험은 단어부터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고, 시험 문항에서 다루는 표현, 도표, 편지 등의 양식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준비기간이 한 학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시험 유형이라고 본다.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교과의 성적산정기준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영어교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외국어에 대한 개인적인 실력 차이는 크게 좁혀지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강제 수강을 요구하는 필수 교과목의 효과는 전반적인 영어성적의 향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영어의 중요성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KUGEP3과

KUGEP4 과목 수강생들의 토익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학교 측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객관적으로 과목 이수 번호가 1,2가 아닌 3,4이기 때문에 목표점수가 더 높은 학생들이 수강할 것으로 기대하곤 했다. 하지만 목표점수인 공인토익 600점 이상자의 경우 KUGEP 3,4 교과 수강 면제 조건을 부과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일정 점수를 달성한 학생의 경우 더 이상 교과를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KUGEP3,4까지 수강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영어 능력 면에서 열위에 있는 학생들임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해 교과 명칭에 대한 직관적 이해와는 다르게 KUGEP3,4 수강생들은 여전히 목표점수인 600점을 획득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새로운 교과의 혁신적인 운영방식은 영어능력 향상에 대한 강한 열망과 의지에서 비롯되어 2015년까지는 몰입수업 시간 배분에 대한 변동만을 조금씩 적용할 뿐 과목 통과기준은 여전히 유효했다. 그래서 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F학점을 받게 된다는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학생들의 피로감이 증가되면서 불만도 커져갔다.

더불어 4개 교과 필수 이수를 추진하던 학교의 입장이 바뀌면서 영어교과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결국 2014, 2015학번들에게 적용되던 KUGEP 1,2,3,4 필수 수강원칙이 바뀌면서 2016학번부터는 KUGEP 3,4과목이 필수 기초교양이 아닌 심화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다. 더불어 그 당시 전임교원 확보비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교수 3인을 급하게 초빙하게 된다. 학기당 12시간 즉 연간 24시간의 강의를 담당해야 할 외국인 교수 3인에게 갑작스레 강의 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필수교과인 KUGEP1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KUGEP 3,4 과목까지 투입하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외국인 교수들이 주로 담당할 수 있는 회화과목 및 프레젠테이션 과목은 폐강 건수가 적잖은 편이었기 때문에 필수 강의시간만큼 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외국인 교수자들이 토익 수업이 포함된 교과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이때 1학기 1학년 재학생 전체 수강 필수 교과인 KUGEP 1은 듣기 위주

유지했고, 2학기 필수 교과인 KUGEP2는 말하기 중점 수업을 지향했다. 하지만 2학기에는 군입대, 휴학, 자퇴 등 학생들의 변동사항 및 교과 면제자 발생 등의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끼쳐 수강생 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편이었다. 실제 영어교과 총 분반수 70여 개에서 50개 선으로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면 학생 수의 변동이 꽤 큰 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과 읽기능력 강화라는 목표를 접합해 KUGEP2와 3 교과에 주된 내용을 바꾸게 된다. 즉 KUGEP2를 말하기 중심에서 읽기 강화로 바꾸고, KUGEP3을 말하기 수업으로 전환하여 영어 학습면에서 Input에서 Output으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이로써 자연스럽게 말하기, 쓰기 영역이 심화 과목으로 편입되었고, 이들 교과에 외국인 교수를 배정하게 된다. 여전히 두 교과에는 토익 1시간이 운영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KUGEP1(듣기), KUGEP2(읽기), KUGEP3(말하기), KUGEP4(쓰기)의 운영체제가 유지되었다. 1학기 필수교과 KUGEP1과 2학기 필수교과 KUGEP2는 다른 심화 과목인 KUEP3,4에 비해 편중되어 설강된 편이었다. 다만 KUGEP3,4의 경우 1,2 학기에 모두 공통적으로 개설이 되었지만 분반 수는 10~15개 반 선을 유지했다. 학과별 졸업 인정 요건인 토익 등의 정규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었고 학생들이 수강을 고학년 시기로 미루거나 계절학기 등으로 소화하는 경우는 계속 찾아볼 수 있었다.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상황에서 교양영어는 또 한 번의 변화 시기를 맞는다.

2020년 학교평가 대비한 교양교과목 운영실태 검토 중 2019년부터 혁신 사업으로 진행된 영어진단·형성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학기 초에 치루는 진단평가와 학기말 14주 차에 진행하는 형성평가는 모두 모의토익으로 진행하였다. 다만 진단평가시기에 토익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라는 점을 감안해 문항 수를 100문항으로 줄인 형태를 적용했다. 하지만 형성평가에서는 정규토익과 같은 형태인 200문항의 문제지를 학생들이 풀게 하였다. 이로 인해 진단, 형성평가의 평가기준이 같은 문제유형이지만 문항수가 상이함으로 인해 비교가치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게 된

다. 더불어 1학기의 경우 KUGEP 1 수강생만 진단평가를 응시하게 하였고, 형성평가는 KUGEP 1,2,3,4 수강생 전원에게 적용하다 보니 향상도 측정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KUGEP 2,3,4 수강생의 경우 진단평가를 이미 다른 학기에 치룬 바 있고, 학교 예산 불충분 등으로 진단평가를 생략했던 부분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해 기초교양에 대해서만 모의토익을 치루게 하여 진단·형성평가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수용하게 된다. 더불어 특정 교과목의 모의토익 점수를 비교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 것과 함께 비용절감이라는 부분이 함께 고려되면서 2020년부터 KUGEP3,4 교과목에서는 수업 중 토익을 제외하게 되었다. 3시간의 수업을 하나의 교재를 통해 진행하는 것에 대해 외국인 교수들은 교재가 적절치 않아 3시간 운영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수업 시간까지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합의를 모았다. 실질적으로 수업운영은 교수자가 얼마나 다양하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토익시험 없는 영어 자체를 다루는 수업을 오랜만에 경험하게 되었다는 점도 의미있게 다가왔다.

그럼에도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맞추주기 위해 토익 수업이 모든 KUGEP 수업에 필요하다는 영어분과 교수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2021년부터 예산이 확보된다면 다시 KUGEP3,4에도 토익 수업이 일부 할애될 것이고, 무엇보다 진단, 형성평가를 KUGEP 1,2,3,4 과목 수강생 모두에게 적용할 것이 예상 가능하다.

III. 교과-비교과 연계의 중요성

교과와 비교과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것은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과에 대한 환류를 이뤄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K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2014년부터로 실태를 살펴보자.

KUGEP교과를 진행하면서 교과와 비교과를 병행하는 구조가 전면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했다. 2014년에는 국고 10억을 지원받아 재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토익 몰입수업을 근간으로 하는 “영어JUMP”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방학 중 8주간 운영된 이 프로그램은 교양 영어 교과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비교과 프로그램이었고, 이와 함께 영어클리닉을 통해 영어학습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을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대표격이었던 JUMP는 학원을 가지 않고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토익 몰입수업이다. 지방에 위치한 지리적인 특성을 살려, 방학 중에도 캠퍼스에 머물면서 비교과 수업을 3-4주간 매일 9시간 이상의 수업을 진행하여 집중 교육을 시행했다. 겨울방학 첫 시행 후 학생들의 수요조사에 따라 두 차례, 즉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으로 인원을 나눠 진행하였으나 2015~16년까지 점차 규모가 축소되었다. 국고 지원으로 이루어질 때에는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할 수 있었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선발해 일주일 내의 해외연수를 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고 지원이 마감된 후 교비지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서 참여인원, 규모가 축소되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학원에 다니면서 영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생기면서 교비 투입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영어 JUMP 시행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은 결국 예산 문제를 가장 큰 이슈로 떠올리며 2017년에 중단하게 된다. 2018년에는 교비지원 대단위 인원이 참석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중단하였고, 교과와 연계한 튜터링만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이에 반해 영어클리닉은 학습 미진한 교과 수강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영어학습능력 미진한 부분을 선배 학생을 통해 스터디그룹 형식으로 진행하게 하는 것을 기획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공인토익성적 700점 이상 보유한 학생들을 튜터로 선발하고 교과수강생 중 모의토익 진단평가 기준 300점 미만자를 튜터로 선발했다. 첫 시행시기에는 봉사활동이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튜터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을 제공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노력 봉사에 대한 다드림 포인트 제공이 가능함을 타진하게 되면서 클리닉이 튜터링으로 변모하게 되는 상황에 이른다.

시기적 변화양상을 살펴보자. 2015년에는 학교 예산에서 튜터 학생들에

게 다드림포인트 20만 점을 부가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진행했으나, 튜터 모집이 자유 선택이다 보니 매우 적은 수의 학생들이 지원했다. 그 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튜터링을 강화하면서 필수 교양 교과인 KUGEP1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토익을 적용한 진단평가를 시행, 시험성적 300 점 미만자에 대해 강제성을 띠며 튜터링을 진행하도록 이끌어 갔다. 120명 가량의 튜터학생을 모집하고, 튜터를 선발 배정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안착하던 중, 튜터에게 지급하는 다드림 포인트를 50만 점까지 상향 조정하고자 추진하지만 결국 과도한 포인트 지급이 예산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다드림 포인트를 15만 점으로 축소하게 되는 결과를 이끌어낸다. 그럼에도 2020년 갑작스레 창궐한 COVID-19 상황에서도 선발 인원은 축소된 규모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에도 튜터링은 여전히 원활히 진행되고 있고, 학생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면서 필요성이 강화되며 지속성을 띠고 있다.

2019년부터 다시금 국고 지원 혁신지원사업이 진행되면서 소규모지만 기존에 진행해온 튜터링, 영어 JUMP, 신규 제안 사업인 말하기 강화에 초점을 둔 KU TALK을 포함해 총 3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KU TALK의 경우, 외국어 말하기 능력으로 방향을 잡아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를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4개 반을 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학생 참여율이 미진하여 다음 해인 2020년에는 중국어 TALK은 빼고 ‘영어 TALK’만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2020년에는 2019년 운영 방식과 큰 차별화를 꾀하는데, 기존 처럼 외주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아닌, 교내 외국인 교수가 담당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위탁으로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인 강사가 토익 스피킹 방식과 free talking 시간을 적절히 혼용하여 진행한 반면, 시험과 무관하게 진행한 교내 외국인 교수의 진행 방식은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치를 수 있게 한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점차 내용적으로 내실을 기하면서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갖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마지막 주차에 contest를 개최해 수상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다드림 포인트(최우수상 15만, 우수상 10만, 장려상 5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형식을 취

했다.

두번째로 영어 JUMP를 살펴보자. 영어 JUMP는 총 50명의 참여인원을 선발하였고, 선발기준은 토익점수 향상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적용했다. 원래의 취지인 600점 이하의 학생들 위주로 선발하고자 하였다.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는 COVID-19의 창궐로 인해 대면수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음에도 참여 지원율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50명 정원으로 진행하려는 당초 계획에 따라 추가 지원자를 더 수용하지 못하였으나, 추후에는 보다 유연성있게 운용하여 지원자 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반 증설이 불가한 경우 반별 인원을 약간 축소하여 반 증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줄어든 인원내 대해 집중 개별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비대면 수업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 반별 인원을 축소하여 집중 관리하는 쪽이 학생들에게 더 필요한 조치라 여겨진다.

성적 향상도는 비대면 수업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와 동일하게 117% 달성하였는데, 토익 평균점수를 비교하면 진단평가 439.1 대비 최종평가에서는 512.2점을 달성하였다. 추후 성적 향상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장학연계 또는 해외파견 프로그램과 연계해 도모한다면 학생들의 동기 부여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가능하다. 더불어 학생들에게 설문지로 조사한 만족도는 4.3/5점을 기록하여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적잖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였을 때와 비교하면 4.7에서 4.3으로 하락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비대면으로 진행한 수업이다 보니 대면 수업보다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보다 거리감이 느껴지고, 집중에 어려움이 있는 것, 질문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별 관리와 같은 보다 세밀한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참여 독려 및 목표 성적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다드림 포인트 제공을 연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한적인 예산에서 모든 활동에 대해 다드림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

로 보인다. 특히 예산 등의 이유로 중단된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며 추후 프로그램 운영이 지속될 경우, 공지에 더 공을 들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학습 동기 유발과 영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마일리지 제도는 많은 대학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 제도는 학습자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시작”(조보람, 896)되었다는데 동의한다. 자발적 참여유도는 한계가 있고, 성적부진학생을 참여시키는 것은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학금 형식의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음에도 말이다.

다음으로 KU TALK에 대해 살펴보면, 2020년 KU-TALK의 경우, 2019년도와는 측정기준이 다르다. 2019년은 자격증 기반으로 운영한 반면, 2020년도는 실용회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외국인 교수 1인이 그 과정을 모두 총괄하였다. 특이점은 2020년은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는 점이고, 프레젠테이션 대회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많은 학생이 대회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영어로 표현해내었다는 점을 높이 사서 참여 학생 모두에게 시상을 하였다.

살펴본 것처럼 토익점수를 기반으로 하여 교과에서 진행한 진단평가 결과를 활용해 점수분포에 따라 구분한 튜터링, 영어 JUMP, KU TALK 이라는 세 가지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교과에서 커버하기 어려운 미진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제각기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미진한 부분을 채워가는 기회와 시간을 가진 것과 목표치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교과-비교과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교과의 활용은 교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유의미하게 작용하였으므로 앞으로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새로운 제안을 하고 더 많은 프로그램 진행을 모색할 예정이다.

IV.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의 의미

1) 영어진단·형성평가의 목표 및 필요성

대학입학시험인 수능에서 영어 절대평가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외국어 기초 학력이 눈에 띄게 저하되었다. 이에 따른 대응책으로 기관 등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입사시험 등에 활용하는 정규시험인 TOEIC을 채택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영어 듣기, 읽기, 말하기 등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잣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진단평가를 통해 신입생 총 1600여 명의 영어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KUGEP 수업의 방향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선형학습이 되어 있어도 비즈니스 영어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ToEIC Test에 익숙치 않은 편이다. 입학 초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취약 부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선 주교재로 영어 전반 기초교육 2시간 수업을 진행하면서 1시간은 토익교재를 활용해 문법 등 기초 영어 능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특히 교과 운영은 언어 4영역 중 듣기 훈련을 강화하는 KUGEP1과 읽기 능력을 강조하는 KUGEP2를 통해 토익 LC/RC 파트를 지속적으로 대비하게 하고, 학기 말 형성평가를 통해 향상도를 측정하였다. 매학기 진단평가 대비 형성평가는 평균 40점 내외의 향상도를 기록했다.

진단평가의 중요성은 특히 비교과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다. 프로그램 참여대상 선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단평가를 통해 최우선 학생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모의토익 350점 미만자는 영어튜터링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기초역량 강화를 추진하였다. 토익 600점 내외의 점수를 획득한 학습우수자는 ‘영어 JUMP’에 참여하도록 하고, 학습최우수자인 700점 이상자는 ‘KU TALK’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이렇게 진단·형성 평가를 토대로 향후 외국어 졸업인증 점수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점수를 기반으로 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도록 독려하였다. 나아가 개별 학생의 모의토의 성적 향상도를 졸업 시까지 추적 분석하여 지속적인 학업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어능력 관리 시스템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2) 과년도 사업과의 연계성

2019년에 행한 영어 진단-형성평가 성과는 +33.11점 향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얻는다. 다만 진단평가는 KUGEP 1,2 수강생 1508명이 참여했고, 형성평가에서는 KUGEP 1,2,3,4 수강생이 참여해 진단평가 참여인원과 형성평가 참여인원의 대상 차이로 인해 유의미한 수치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반영해 2020년에는 진단-형성평가의 대상자를 KUGEP 1,2로 국한하여 총 대상인원 약 1,600명이 응시해 향상도 47점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3) 결과 분석

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과목이 절대평가로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초 학력 부진이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학력 저하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고, 대응책으로는 기관 등에서 보편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정규시험인 TOEIC을 적용해 학생들의 기초 역량에 대해 진단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즉 대학생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듣기, 읽기, 말하기 등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잣대로 모의 토의 시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방법론으로는 입학 초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취약 부분을 파악하고,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제 수업에 적용하도록 한다. 전반적으로 듣기 능력과 읽기 능력 향상을 꾀하기 위해, 주교재로 2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토익교재를 활용해 1시간을 수업에 할애한다. 특히 토익을 통한 단어 및 문법 등에 대한 기초를 다지게 함으로써 기초 외국어 능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토의 시험은 문법에서부터 듣기, 말하기, 읽기를 비즈니스 영어에 특화해

강화할 수 있는 공인시험이라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본다. 대기업 등에서는 실무능력 파악을 위해 채택하지 않는 시험이기도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영어 성적 제출을 요구하는 편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졸업 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1학년부터 토익 시험에 노출하게 하는 것은 영어능력 신장 및 취업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달성에 유의미하다고 강조하는 바이다.

특이할 점은 COVID-19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2020년 1학기는 진단, 형성평가를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특히 객관성 담보를 위해 시험 응시 학생 모두에게 다른 시험지가 제공되는 CAT토익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2020년 1학기부터 진단평가 대상을 축소하여 KUGEP1에 국한해 진행하였고, 형성평가는 강의계획서에 제시된 대로 KUGEP1~4 과목 수강생 모두에게 적용하였다.

진단평가 758명 응시, 형성평가는 KUGEP1 총 712명 응시, 평균 점수 467.3을 기록함으로써 소기의 예상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실제 수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공인시험을 대비하게 하여 영어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취시키고, 더불어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진단 형성평가의 활용성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진단평가를 통해 토익성적에 따라 학생들에게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2학기로 미뤄졌으나, 적용할 수 있는 지표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V. 나가며

교양 교과 중 영어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고, 학생들을 위해 교양 영어 등의 교과목은 갈수록 교육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 둘 다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때 교과의 운영만으로는 일방향의 활동이 이루어지기 쉽고, 단

편적인 성향을 띠므로, 연계성 있는 교과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더불어 기초교양과목에서는 필수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병행해 교과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진행하는데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더불어 비교과를 통해 교과에 대한 흥미를 진작시키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더 이루게 한다는 점에서 교과에 대한 동기부여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비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열위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로서의 프로그램이 아닌, 컨테스트를 도입했다.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프로그램 진행 기간 동안 역량이 얼마나 강화될 수 있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했다. 또한 학교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학생들에게 공신력을 더욱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자신이 경험한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결과치를 좋은 사례로 인지해 후배 학생들에게 전파함으로써 전반적인 학구열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가령 튜터링의 경우 선후배 간 좋은 관계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튜터 튜티간의 라포르 형성이 곧 인간관계 기술에 대한 경험치를 올려주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지역적으로 캠퍼스가 충청권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토익 등으로 진행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채택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이 역으로 공교육의 장으로 유입되도록 할 수 있었다. 동시에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준비시키는 원동력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과의 충족성과 만족도를 높이도록 기획, 운영,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교과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비교과의 운영으로 그 위상이 더 공고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떠한 비교과를 운영하는가가 교과의 학업적 성취를 높이고, 학생들에게는 시간관리, 인간관계향상 등 사회 적응력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강혜진, 「비교과교육 관련 연구의 동향」, 『문화와 융합』 43권 6호, 2021, 233~248.
- 김현우, 강선영, 「비교과 프로그램 연계 교양교과목의 수업효과 분석」, 『교양교육연구』 12.3, 2018, 39-61.
- 백원영, 『대학의 융합 교육 및 교과, 비교과 활동이 대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세 가지 에세이 : 대학의 교육-취업 연계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송나리, 『대학의 비교과 교육과정 개발 운영 모형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20.
- 이경진, 최나영, 「사례 분석에 기반한 대학 비교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의 시사점 탐색」, 『교육혁신연구』 Vol. 31.2, 2021, 197-223.
- 이희원, 박소현, 「핵심역량에 대한 요구도 분석과 역량 우수 학생 FGI를 통한 역량기반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S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핵심역량교육연구』 6권 1호, 2021, 23~47.
- 조보람, 「대학의 비교과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학습자 인식 분석: k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1권 15호, 2021, 895-913.
- 한안나, 「대학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과 성과: D 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教育問題研究』 30.4, 2017, 111-138.

A Case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Courses and Extra-Curricular Programs as Co-Curriculum: Focusing on KUGEP and ECA Programs at Konkuk University

Yoon, So Young
(Konkuk University)

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provides main 4 types of Academic English as Liberal Arts courses, which called KUGEP (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English Program) comprising KUGEP 1, 2, 3, and 4. They are academic courses, which have been operated since 2014. In addition to these courses, extra-curricular activities (ECA) are needed to secure and supplement lacking side of obligatory courses. Based on moot TOEIC scores, three ECA programs as co-curriculum were operated: tutoring, English JUMP, and KU TALK. They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core distribution using the diagnostic evaluation results conducted in the subject. It was confirmed that academic courses and extra-curricular programs are properly linked in that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programs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needs. Moreover, this provides the opportunity and time to fill up students' insufficient competency by achieving the set goal. The use of extra-curricular programs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enhancing satisfaction with academic courses, so if more budgets are secured in the future, we will make new proposals to operate additional extra-curricular programs and seek to proceed with more programs.

Keyword ● academic courses, extra-curricular programs, tutoring, English Jump,
KU Talk

■ 논문투고일 : 2021. 12. 1. ■ 심사완료일 : 2021. 12. 13. ■ 게재확정일 : 2021. 12. 14.

